

2027
고2 문학
지학사

2027 고2 문학 지학사 | 2(2)(2) 엇박자 D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자, 이번에는 소설 「엇박자 D」를 정리해 보자구나. 이 소설을 읽으면서는 어떤 점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니?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때 엇박자 D의 노래가 합창을 망치는 ‘불길한 기운’이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음치들의 합창은 아름답다**고 하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이 음을 못 맞추는 노래인데 왜 평이 다른 건지, 서술자의 생각이 왜 바뀌었는지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질문했구나! 바로 그 ‘나’의 **인식 변화 과정**이 이 소설의 주제를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시험에도 반드시 출제되는 포인트란다.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등장인물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부터 알아야 해.

- **음악 선생님**: 모두가 똑같은 소리를 내야 한다고 믿으며, **다른 소리를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획일적인 사회**를 상징해.
- **‘나’와 합창 단원들**: **획일적인 사회에 순응하며 잘못된 폭력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소극적인 방관자들**을 상징하지.
- **엇박자 D**: 이런 획일적인 사회 속에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곳곳이 드러내는 존재**, 즉 ‘다름’과 ‘개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네.



아하, 그럼 ‘나’의 인식은 왜 변한 건가요?

과거 합창단 시절에 ‘나’는 음악 선생님처럼 합창은 모두 똑같은 목소리로 만들어내는 조화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엇박자 D의 다른 목소리를 **조화를 깨뜨리는 ‘틀림’**으로 여겼던 거야.

하지만 20년이 지나 엇박자 D가 기획한 공연에서 음치들의 합창을 듣게 되지. 처음에는 엉망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노래는 놀랍게도 아름다웠어. 각기 다른 음정과 박자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새로운 조화**를 만들어 낸 거지. 이때 ‘나’는 깨닫게 되는 거야. ‘다름’은 ‘틀림’이 아니며, 오히려 **각자의 개성(‘음치’)이 존중받을 때 더 아름다운 조화(‘합창’)**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아! '다름'이 모여서 새로운 '조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군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와 친구들이 20년 전 엿박자 D처럼 립싱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런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나'와 친구들의 립싱크는 과거 엿박자 D가 겪어야 했던 폭력적인 상황을 그대로 따라 하는 행동이지.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

- **속죄와 미안함:** 과거에 엿박자 D가 부당한 폭력을 당할 때, **침묵으로 동조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속죄'의 의미란다.
- **존경과 예의:**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름'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해 준 엿박자 D에 대한 '존경과 예의'의 표현이기도 해. 정리하자면, 이 소설은 **확일성을 강요하는 사회를 비판**하고,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존중할 때 진정한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주제**를 전달하는 작품이라네. '나'의 인식 변화 과정과 마지막 립싱크 장면의 의미, 이 두 가지만은 꼭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렴!



네, 선생님! 이제 이 소설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확실히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목단배포김시

2027
고2 문학
지학사

2027 고2 문학 지학사 | 2(2)(2) 엃박자 D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파란색 설명은 주석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빨간색 설명은 내신 시험 출제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공연 기획자인 ‘나(서술자.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중심인물과의 경험을 전달하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는 공연 디브이디(DVD)를 제작하다 **고등학교 때 함께 합창단 활동을 했던 동창인 엃박자 D를 관객들 사이에서 발견(과거 회상의 계기)하고, 고등학교 합창단 시절을 떠올린다.**

[축제 때 부를 노래를 정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음. 합창에 애정이 없음.) 누군가 그즈음 가장 인기 있던 발라드 곡을 추천했(다기보다 그냥 제목을 댔)고, 모두들 찬성했다. 어떤 노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합창을 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노래였다.**(합창단 활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었음.) 단순한 멜로디였고,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 데 여러 명이 뛰어들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부르기 쉬운 노래였다. 우리는 **노래를 정한 후 다시 자습에 몰두했다.**]([: 합창단 활동에 무관심하고 무성의한 태도) 연습이 시작된 건 그 다음 주였다. **지금도 첫 연습을 하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난다.**(합창단 첫 연습이 '나'에게 인상적인 사건으로 기억됨.)

“자, 자, 쉬운 노래니까 **딱 한 번만 맞춰 보고 자습하자.**(음악 선생조차 합창에 별다른 애정이 없었음을 짐작하게 함.)”

음악 선생이 피아노 반주를 시작한 후, 우리는 **엃박자 D의 진면목(엃박자 D가 박치이자 음치인 것)을** 처음 알게 됐다. 그는 놀라울 정도의 박치이자 음치였다. 음악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모두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노래와 목소리 사이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엃박자 D의 목소리. 노래를 망치는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불길한 기운은 순식간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집어삼켰다. 다섯 소절쯤 지나자 노래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야, **아무리 편안한 맛에 들어왔다지만(합창보다는 자습이 주된 목적이었음.)** 그래도 명색이 합창단인데 노래를 이렇게 못할 수가 있냐?”

음악 선생은 **반주를 멈추고 화를 냈다.**(확실성을 강조하는 태도. 음악 선생에 대해 묻는 문제에 ‘학생들 각자가 지닌 박자와 음을 바탕으로 합창이 지닌 통일성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라는 틀린 선지와 ‘확실성을 강요하고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불러 보았지만 불길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세 번째에야 선생님은 그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잠깐, 이 목소리 누구야? 계속 불러 봐.”

음악 선생은 세 줄로 서 있던 22명의 아이들 앞을 천천히 걸었다. 모두들 긴장했다. 내 노래 실력이 합창을 망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과 그래도 **혹시 나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이들의 노래에 배어났다.**(확실성에서 벗어났을까 봐 불안해함. 전체주의적 폭력에 겁을 먹은 모습) 불안한 마음이 부르는 노래는, 이미 노래가 아니었다.

“**단장(엃박자 D), 이게 네 목소리 아냐? 모두 멈추고 단장 혼자 불러 봐.**”

엃박자 D의 노래는 들어 줄 만했다. **부드러운 느낌도 잘 살아 있었고, 박자도 이상하지 않았다.**(혼자 부를 때에는 박치와 음치가 아님. 단순히 내용에 대해 묻는 문제에 ‘엃박자 D는 음치였지만 혼자 부를 때에는 들어 줄만하였다.’라

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음악 선생은 고개를 가웃거렸다. 뭔가 이상하긴 한데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상한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을 말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 축제 공연 연습에서 박치이자 음치임이 드러난 엷박자 D

다시 합창을 시도해 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엷박자 D의 목소리만 들리면 아이들이 갈피를 잡지 못했고, 음은 뒤죽박죽이 됐으며 박자는 제멋대로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였다.**(개선되기 어렵고, 다른 학생들의 노래까지 망침(비유).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음악 선생은 **엷박자 D에게 자진 사퇴**(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폭력적 태도 ①)를 권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광고를 여러 곳에 해 두었다는 것이 이유였다.**(엷박자 D는 합창단 활동에 열정이 있었음. '합창'에 대한 엷박자 D와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좋아, 대신 넌 절대 소리 내지 마. **그냥 입만 병긱병긱하는 거야.**(음악 선생님의 궁여지책.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폭력적 태도 ②) 알았지?”

▶ 박치이자 음치인 엷박자 D에게 축제 공연에서 립싱크를 주문하는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엷박자 D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다. 음악 선생이 했던 말과 엷박자 D의 반응과 친구들의 속삭임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이름만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놀림의 대상만으로 생각하여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별명으로만 불렀기 때문에) 가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 엷박자 D의 이야기를 한 적도 있지만 그의 이름이 혀끝에 오르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D라는 문자는 그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왔다. **D라는 것이 그의 이름 이니셜인지, 아니면 그가 D음만을 고집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지 기억 나지 않지만,**(이름도 모르고 별명이 왜 '엷박자 D'인지 기억하지 못할 만큼 가깝지 않은 사이였음.) D라는 문자를 보고 있으면 곧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움이 감지되고, 언제나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었다. 어찌됐건 **우리는 엷박자 D의 이야기를 자주 했다. 재미있는 추억거리였고, '엷박자 디'라고 발음할 때의 이상한 쾌감도 좋았다.**(타인에게는 상처일 수도 있는 별명을 재미있는 추억거리로만 생각하는 태도) 그의 이름이 거론되면 대개 첫 연습 때 그가 보여 준 놀라운 엷박에 대한 감탄이 이야기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

▶ '엷박자 D'라는 별명에 대한 기억

▶ 전개: '나'는 고등학교 시절 함께 합창부를 했던 엷박자 D를 회상함.

엷박자 D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공연 디브이디가 발매되고 2주일이 지나서였다.

[중략 부분 줄거리] 고등학교 축제 때 엷박자 D는 립싱크만 하라는 음악 선생의 지시를 듣지 않고 노래를 불러 공연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음악 선생에게 크게 혼난다. 그 사건 이후 그는 음악에 대한 관심을 끊고 영화를 전공하게 되지만, 「소리의 전시회」라는 무성 영화에서 영감을 얻어 대학원에서 음치들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가 공연 기획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에게 찾아와 **자신의 공연 기획을 도와 달라는 부탁**(엷박자 D가 '나'를 찾아온 목적)을 하게 된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다가 평소에 관심을 두었던 그룹 '더블 더빙'을 엷박자 D가 섭외했다는 말을 듣는다. **더블 더빙과 함께 공연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나'가 엷박자 D의 부탁을 받아들인 까닭 → '나'의 이해타산적 성격) '나'는 엷박자 D의 부탁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엷박자 D의 요청으로 오랜만에 합창단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공연에 초대한다. 공연은 시작 전부터 반응이 좋아 매진이 되고, 성공적으로 진행된다.

관객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순간은 무성 영화의 장면이 맞춰 더블 더빙이 연주를 할 때였다. 「재채기」라는 아주 짧은 무성 영화였다. 영화가 시작되면 한 여자의 커다란 얼굴이 나타난다. 여자는 코가 간지럽다. 재채기가 나오려고 한다. 참아 보지만 쉽지가 않다. 내용은 그게 전부다. 재채기가 나올까 말까 하는 장면이 맞춰 더블 더빙이 재미난 연주를 들려줬다. 관객들은 무성 영화를 보며 한 번 웃고, 더블 더빙의 연주를 들으며 또 한 번 웃었다. **여자의 찡그린 얼굴과 더블 더빙이 들려주는 음악은 묘하게 리듬이 맞질 않았다.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엷박자였다. 관객들은 그걸 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엷박자가 공연을 망치는 게 아니라 공연의 재미를 더해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음악을 통해 엷박자(음치)에 대한 인식을 바꾸

려는 기획 의도가 드러남. **엇박자 D의 의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더블 더빙이 엇박자 D를 위해 이런 음악을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마치 그에게 바치는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엇박자 D를 위한 엇박자 연주곡.’

▶ 영상과 반주의 엇박자를 재미있어 하는 관객들

공연이 끝났지만 관객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모두 앙코르를 외치고 있었다. 물론 앙코르곡을 준비해 두었다. 더블 더빙이 다시 나타났고, 모든 조명이 꺼졌다. 관객들의 소리도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하나의 기다랗고 평평한 일직선으로 변했다.**(소리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함.)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다. 음악 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들의 최고 히트곡을 연주할 차례였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다.**(준비해 둔 앙코르곡과 달랐기 때문)

“음향, 뭐가 잘못된 거야? 사운드 체크해 봐.”

무선 헤드셋으로 엇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잘못된 건 없어. 너 몰래 만들어 둔 시나리오야. **20년 전 친구들에게 바치는 선물이야.**(공연에 담긴 엇박자 D의 숨은 의도)”

아주 작게 들리던 음악 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관객들 사이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누군가의 노래였다. 아무런 반주도 없이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어 본 노래였다. 그제야 노래의 제목이 생각났다.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각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뒹뒹하게 밝히는 자기 선언의 표현. **이 노래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라는 노래였다. 20년 전 축제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나나 친구들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엇박자 D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세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고, 네 사람, 다섯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합창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창이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음이 맞질 않았다. 박자도 일치하지 않았다.**(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음치, 박치임을 알 수 있음.)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20년 전 바로 그 노래야.(합창에 대한 열정은 무시되고 음치라는 이유로 수모를 당한 것에 대한 항변의 의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치들의 목소리로만 믹싱한 거니까 즐겁게 감상해 줘.”

무선 헤드셋에서 다시 엇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명은 하나도 켜지질 않았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온전히 노랫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함.) 어둠 속이어서 그런 것일까. 노래는 아름다웠다.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진실을 알게 됨. 서로 다른 목소리들의 존재가 조화로움을 깨달음. **‘나’의 인식 변화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마치 화음 같았다. 어둠 속이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음치들의 노래는 어두운 방에서 전원 스위치를 찾는 왼손처럼 더듬 더듬 어디론가 내려앉았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음치들의 노래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 몇몇 관객은 후렴을 따라 부르기까지 했다. 1절이 끝나자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명이 켜졌다. 더블 더빙이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의 간주를 연주했고,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은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 브라보를 외쳤다.**(관객들이 음치들의 합창에 감동을 받음.)

음치들의 노래 2절이 시작되자 더블 더빙은 다시 연주를 멈췄다.(구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 ‘음치들의 노래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된 연출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면 그들의 노랫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것이 분명했다. 22명의 노래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이유는, 아마도 엇박자 D의 리믹스 덕분일 것이다. **22명의 노랫소리를 절묘하게 배치했다.**(서로 음과 박자가 일치하지 않은 노래가 아름답게 들린 까닭 - 개개인의 ‘다름’이 지닌 가치를 조화롭게 구현함. 구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 ‘서로의 음과 박자가 일치하지 않는 음치들의 노래가 아름답게 들린 이유에 해당한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겹치지만 절대 서로의 소리를 해치지 않았다. 노래를 망치지 않았다.

▶ 더블 더빙 공연의 앙코르곡으로 음치들의 합창을 준비한 엇박자 D

▶ 절정: 엇박자 D의 깜짝 기획으로 준비된 앙코르곡 대신 음치들의 합창이 흘러나오고, 관객들이 음치들의 합창에 감동함.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의 얼굴에는 아득하게 흐려진 어떤 것을 추억하는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벌긱거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나 역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오래된 노래였지만 가사가 모두 기억났다. **20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들이 립싱크를 하고 있었다.**(엇박자 D에 대한 미안함과 속죄 의식. 음치들의 합창에 대한 '나'와 친구의 반응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립싱크를 하는 모습에 나타난 태도를 묻는 문제에 '고등학교 시절 엇박자 D를 존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음치들의 노랫소리에 맞춰 우리는 입을 벌긱거렸다. 노래를 따라 부르긴 했지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그저 입만 벌긱거렸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그러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것이 엇박자 D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음치들의 노래에 감동하며 편견에서 벗어난 '나'와 친구들

▶ 결말: 아름다운 음치들의 노래에 모두가 감동을 받음.

- 김중혁, 「**엇박자 D**」(학창 시절 박치이자 음치였던 등장인물의 별명으로, '나'는 그의 원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음치라는 특징으로만 기억하여 별명으로 부르고 있음. 작가는 이러한 '엇박자 D'라는 별명과 별명을 부르는 태도를 바탕으로 획일성의 강요에 답답해하면서도 다름과 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용에 인색한 사회적 분위기를 비판하는 한편, 엇박자로 조금씩 어긋나면서도 아름다운 합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줌으로써 편견과 고정 관념의 벽을 넘고자 한 것임.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바를 묻는 문제에 "다름"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2027
고2 문학
지학사

2027 고2 문학 지학사 | 2(2)(2) 엃박자 D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앞부분 줄거리] 공연 기획자인 ‘나()’는 공연 디브이디(DVD)를 제작하다 고등학교 때 함께 합창단 활동을 했던 동창인 엃박자 D를 관객들 사이에서 발견()의 계기.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이야기 의 서술자가 과의 을 전달하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하고, 고등학교 합창단 시절을 떠올린다.

[축제 때 부를 노래를 정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음. 합창에 이 없음.) 누군가 그즈음 가장 인기 있던 발라드 곡을 추천했(다기보다 그냥 제목을 댔)고, 모두들 찬성했다. 어떤 노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합창을 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노래였다.(합창단 활동에 대한 과 이 없었음.) 단순한 멜로디였고,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 데 여러 명이 뛰어들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부르기 쉬운 노래였다. 우리는 노래를 정한 후 다시 자습에 몰두했다.]([]: 합창단 활동에 하고 한 태도) 연습이 시작된 건 그 다음 주였다. 지금도 첫 연습을 하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난다.(합창단 첫 연습이 '나'에게 적인 사건으로 기억됨.)

“자, 자, 쉬운 노래니까 딱 한 번만 맞춰 보고 자습하자.()조차 합창에 별다른 이 없었음을 짐작하게 함.)”

음악 선생이 피아노 반주를 시작한 후, 우리는 엃박자 D의 진면목(엃박자 D가 이자 인 것)을 처음 알게 됐다. 그는 놀라울 정도의 박치이자 음치였다. 음악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모두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노래와 목소리 사이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의 목소리. 를 망치는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불길한 기운은 순식간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집어삼켰다. 다섯 소절쯤 지나자 노래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야, 아무리 편안한 맛에 들어왔다지만(합창보다는 이 주된 목적이었음.) 그래도 명색이 합창단인데 노래를 이렇게 못할 수가 있냐?”

음악 선생은 반주를 멈추고 화를 냈다.()을 강조하는 태도. 음악 선생에 대해 묻는 문제에 ‘학생들 각자가 지닌 박자와 음을 바탕으로 합창이 지닌 통일성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라는 선지와 ‘ 성을 강요하고 성을 인정하지 않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불러 보았지만 불길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세 번째에야 선생님은 그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잠깐, 이 목소리 누구야? 계속 불러 봐.”

음악 선생은 세 줄로 서 있던 22명의 아이들 앞을 천천히 걸었다. 모두들 긴장했다. 내 노래 실력이 합창을 망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과 그래도 혹시 나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이들의 노래에 배어났다.()에서 벗어났을까 봐 불안해함. 전체주의적 에 겁을 먹은 모습) 불안한 마음이 부르는 노래는, 이미 노래가 아니었다.

“단장(엃박자 D), 이게 네 목소리 아냐? 모두 멈추고 단장 혼자 불러 봐.”

엃박자 D의 노래는 들어 줄 만했다. 부드러운 느낌도 잘 살아 있었고, 박자도 이상하지 않았다.(혼자 부를 때에는 와 가 아님. 단순히 내용에 대해 묻는 문제에 ‘엃박자 D는 였지만 부를 때에는 들어 줄만하였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음악 선생은 고개를 가웃거렸다. 뭔가 이상하긴 한데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상한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을 말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 축제 공연 연습에서 이자 임이 드러난 엃박자 D

다시 합창을 시도해 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엃박자 D의 목소리만 들리면 아이들이 갈피를 잡지 못했고, 음은 뒤죽박죽이 됐으며 박자는 제멋대로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였다.**(개선되기 어렵고, 다른 학생들의 ____까지 망침(____).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음악 선생은 **엃박자 D에게 자진 사퇴**(____을 인정하지 않는 ____적 태도 ①)를 권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광고를 여러 곳에 해 두었다는 것이 이유였다.**(엃박자 D는 합창단 활동에 ____이 있었음. **'합창'에 대한 엃박자 D와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좋아, 대신 넌 절대 소리 내지 마. **그냥 입만 병긱병긱하는 거야.**(음악 선생님의 궁여지책. ____을 인정하지 않는 ____적 태도 ②) 알았지?”

▶ 박치이자 음치인 엃박자 D에게 축제 공연에서 ____를 주문하는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엃박자 D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다. 음악 선생이 했던 말과 엃박자 D의 반응과 친구들의 속삭임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이름만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____의 대상만으로 생각하여 ____을 부르지도 않고 ____으로만 불렀기 때문에) 가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 엃박자 D의 이야기를 한 적도 있지만 그의 이름이 혀끝에 오르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D라는 문자는 그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왔다. **D라는 것이 그의 이름 이니셜인지, 아니면 그가 D음만을 고집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____도 모르고 별명이 왜 '엃박자 D'인지 기억하지 못할 만큼 ____지 않은 사이였음.) D라는 문자를 보고 있으면 곧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움이 감지되고, 언제나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었다. 어찌됐건 **우리는 엃박자 D의 이야기를 자주 했다. 재미있는 추억거리였고, '엃박자 디'라고 발음할 때의 이상한 쾌감도 좋았다.**(타인에게는 ____일 수도 있는 ____을 재미있는 추억거리로만 생각하는 태도) 그의 이름이 거론되면 대개 첫 연습 때 그가 보여 준 놀라운 엃박에 대한 감탄이 이야기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

▶ '____'라는 ____에 대한 ____

▶ 전개: '나'는 고등학교 시절 함께 합창부를 했던 엃박자 D를 ____함.

엃박자 D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공연 디브이디가 발매되고 2주일이 지나서였다.

[중략 부분 줄거리] 고등학교 축제 때 엃박자 D는 립싱크만 하라는 음악 선생의 지시를 듣지 않고 노래를 불러 공연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음악 선생에게 크게 혼난다. 그 사건 이후 그는 음악에 대한 관심을 끊고 영화를 전공하게 되지만, 「소리의 전시회」라는 무성 영화에서 영감을 얻어 대학원에서 음치들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가 공연 기획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에게 찾아와 **자신의 공연 기획을 도와 달라는 부탁**(엃박자 D가 '나'를 찾아온 ____을 하게 된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다가 평소에 관심을 두었던 그룹 '더블 더빙'을 엃박자 D가 섭외했다는 말을 듣는다. **더블 더빙과 함께 공연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나'가 엃박자 D의 부탁을 받아들인 까닭 → '나'의 ____적 성격) '나'는 엃박자 D의 부탁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엃박자 D의 요청으로 오랜만에 합창단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공연에 초대한다. 공연은 시작 전부터 반응이 좋아 매진이 되고, 성공적으로 진행된다.

관객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순간은 무성 영화의 장면이 맞춰 더블 더빙이 연주를 할 때였다. 「재채기」라는 아주 짧은 무성 영화였다. 영화가 시작되면 한 여자의 커다란 얼굴이 나타난다. 여자는 코가 간지럽다. 재채기가 나오려고 한다. 참아 보지만 쉽지가 않다. 내용은 그게 전부다. 재채기가 나올까 말까 하는 장면에 맞춰 더블 더빙이 재미난 연주를 들려줬다. 관객들은 무성 영화를 보며 한 번 웃고, 더블 더빙의 연주를 들으며 또 한 번 웃었다. **여자의 찡그린 얼굴과 더블 더빙이 들려주는 음악은 묘하게 리듬이 맞질 않았다.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엃박자였다. 관객들은 그걸 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____가 공연을 망치는 게 아니라 공연의 재미를 더해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음악을 통해 ____에 대한 ____을 바꾸려는 기획 의도가 드러남. **엃박자 D의 의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더블 더빙이 엃박자 D를 위해 이런 음악을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마치 그에게 바치는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엃박자 D를 위한 엃박자 연주곡.'

하는 모습에 나타난 태도를 묻는 문제에 '고등학교 시절 엽박자 D를 _____ 하지 못한 것에 대한 _____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음치들의 노랫소리에 맞춰 우리는 입을 벌긔거렸다. 노래를 따라 부르긴 했지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그저 입만 벌긔거렸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그러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것이 엽박자 D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음치들의 노래에 _____하며 _____에서 벗어난 '나'와 친구들

▶ 결말: 아름다운 음치들의 노래에 모두가 _____을 받음.

- 김종혁, 「**엽박자 D**(학창 시절 박치이자 음치였던 등장인물의 _____으로, '나'는 그의 원래 _____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음치라는 특징으로만 기억하여 _____으로 부르고 있음. 작가는 이러한 '엽박자 D'라는 별명과 별명을 부르는 태도를 바탕으로 _____의 강요에 답답해하면서도 _____과 _____에 대한 이해와 수용에 인색한 사회적 분위기를 _____하는 한편, 엽박자로 조금씩 어긋나면서도 _____합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줌으로써 _____과 _____의 벽을 넘고자 한 것임.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바를 묻는 문제에 “_____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_____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나무아카데미

2027
고2 문학
지학사

2027 고2 문학 지학사 | 2(2)(2) 엇박자 D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작품 개관

갈래	단편 소설
성격	회고적, 상징적, 비판적
주제	다름과 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필요성, 다름에 대한 존중과 다양성의 가치 인정, 틀에서 벗어난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현실에 대한 비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사건의 회상을 통해 현재 사건의 의미를 발견하게 함. '합창'을 소재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상황을 비판하고 독자의 성찰을 유도함.

2. 작품 구조

발단	'나'는 락 공연 DVD를 편집하다 엇박자 D를 발견함.
전개	엇박자 D는 고교 시절 합창단에서 열정적인 학생이었으나 딱치이자 음치로, 음악 선생님은 엇박자 D에게 입만 벅긋벅긋하라고 주문함.
위기	엇박자 D는 '나'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기획을 하는 더블 더빙의 공연 컨설팅을 맡아줄 것을 제안하고, 고교 시절의 얘기를 꺼내며 공연 기획의 의도가 자신이 음치가 아님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임을 이야기함.
절정	더블 더빙의 공연에서 영상과 연주의 엇박자가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엇박자 D의 계획에 따라 앙코르 공연에 예정에 없던 음치들의 노래가 흘러나옴.
결말	아름다운 음치들의 노래에 감동하며 편견에서 벗어남.

3. 합창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 축제 때 부를 노래를 큰 고민 없이 쉬운 노래로 선정함.
- 노래 연습보다는 자습에 몰두함.

합창단 활동에 대해 무관심하고 열정이 없음.

4. 합창에 대한 음악 선생의 태도

획일성	모두가 하나의 소리를 내야 함.
폭력성	다른 소리는 차단해야 함.

→ 획일성을 강조하고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폭력성을 상징함.

5. 고등학교 시절 인물들이 보여 주는 상징성

엇박자 D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리지 않는 인물
음악 선생	획일성을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개인의 개별성을 억압하는 인물
'나', 합창단원들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리고 전체 속에 함몰되어 있는 개인들

6. 음치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

‘다름’을 ‘틀림’으로 몰아세우고 **개별성**을 무시하는 사회의 암묵적인 규약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 제기

과거	현재
조화를 깨뜨려 노래를 망침.	서로 다른 목소리들의 존재가 조화로움 을 깨달음.

7. ‘엇박자 D’가 음치들의 노래를 들려준 의도

- 20년 전 공연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 극복**
- 음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유도

차이를 **존중**하는 삶의 태도 강조

8. ‘음치’와 ‘합창’의 상징적 의미

음치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각자의 개성
합창	조화 를 이루는 세상

- ‘음치들의 아름다운 합창’은 ‘다름’, ‘차이’가 **조화**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의미함.
-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담김.

9. ‘엇박자 D에 대한 예의’의 의미

과거에 엇박자 D가 폭력을 당할 때 **침묵**으로 **동조**한 것에 대한 **미안함**.

+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름**의 가치를 **깨닫**게 해 준 것에 대한 **감동**과 **고마움**.

→ ‘나’와 친구들은 **속죄**의 의미로, 20년 전 엇박자 D에게 강요되었던 **립싱크**를 하며 **예의**와 **경의**를 포함.

TEST 1단계

1. 작품 개관

갈래	단편 소설
성격	□고적, 상□적, 비□적
주제	다□과 차□에 대한 이□와 수□의 필요성, 다□에 대한 존□과 다□성의 가치 인정, 틀에서 벗어난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현실에 대한 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사건의 회□을 통해 현□ 사건의 의□를 발견하게 함. • ‘합□’을 소재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상황을 비□하고 독자의 성□을 유도함.

2. 작품 구조

발단	‘나’는 락 공연 DVD를 편집하다 엇박자 D를 발견함.
전개	엇박자 D는 고교 시절 합창단에서 열정적인 학생이었으나 □치이자 □치로, 음악 선생님은 엇박자 D에게 입만 병긱병긱하라고 주문함.
위기	엇박자 D는 ‘나’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기획을 하는 더블 더빙의 공연 컨설팅을 맡아줄 것을 제안하고, 고□ 시절의 얘기를 꺼내며 공연 기획의 의□가 자신이 음□가 아님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임을 이야기함.
절정	더블 더빙의 공연에서 영상과 연주의 엇박자가 관객들에게 호□을 얻고, 엇박자 D의 계획에 따라 앙코르 공연에 예정에 없던 음□들의 노래가 흘러나옴.
결말	아□다운 음□들의 노래에 감□하며 편□에서 벗어남.

3. 합창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 축제 때 부를 노래를 큰 고민 없이 쉬□ 노래로 선정함.
- 노래 연습보다는 자□에 몰두함.



합창단 활동에 대해 무□심하고 열□이 없음.

4. 합창에 대한 음악 선생의 태도

획일성	모두가 하□의 소리를 내야 함.
폭력성	다른 소리는 차□해야 함.

→ 획□성을 강조하고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폭□성을 상징함.

5. 고등학교 시절 인물들이 보여 주는 상징성

엇박자 D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지 않는 인물
음악 선생	획□성을 폭□적으로 강요하고, 개인의 개□성을 억압하는 인물
‘나’, 합창단원들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고 전□속에 함□되어 있는 개인들

6. 음치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

‘다□’을 ‘틀□’으로 몰아세우고 개□성을 무시하는 사회의 암묵적인 규약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의□ 제기

과거	현재
조□를 깨뜨려 노래를 망침.	서로 다□ 목소리들의 존재가 조□로움을 깨□음.

7. ‘엇박자 D’가 음치들의 노래를 들려준 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전 공연에서 받은 마음의 상□ 극□ • 음□에 대한 인□의 변□ 유도
↓
차□를 존□하는 삶의 태도 강조

8. ‘음치’와 ‘합창’의 상징적 의미

음치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각자의 개□
합창	조□를 이루는 세상

- ↓
- ‘음치들의 아름다운 합창’은 ‘다름’, ‘차이’가 조□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조□를 이루는 것임을 의미함.
 - ‘차□’를 인정하지 않고 ‘차□’과 ‘배□’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에 대한 비□적 태도가 담김.

9. ‘엇박자 D에 대한 예의’의 의미

과거에 엇박자 D가 폭력을 당할 때 침□으로 동□한 것에 대한 미□함.

+

과거의 상처를 극□하고 다□의 가치를 깨□게 해 준 것에 대한 감□과 고□움.

→ ‘나’와 친구들은 속□의 의미로, 20년 전 엇박자 D에게 강요되었던 립□크를 하며 예□와 경□를 포함.

TEST 4단계

1. 작품 개관

갈래	단편 소설
성격	___적, ___적, ___적
주제	___과 ___에 대한 ___와 ___의 필요성, ___에 대한 ___과 ___의 가치 인정, 틀에서 벗어난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현실에 대한 ___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___ 사건의 ___을 통해 ___ 사건의 ___를 발견하게 함. • ‘___’을 소재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상황을 ___하고 독자의 ___을 유도함.

2. 작품 구조

발단	‘나’는 락 공연 DVD를 편집하다 엿박자 D를 발견함.
전개	엿박자 D는 고교 시절 합창단에서 열정적인 학생이었으나 ___이자 ___로, 음악 선생님은 엿박자 D에게 입만 빙긱빙긱하라고 주문함.
위기	엿박자 D는 ‘나’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기획을 하는 더블 더빙의 공연 컨설팅을 맡아줄 것을 제안하고, ___시절의 얘기를 꺼내며 공연 기획의 ___가 자신이 ___가 아님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임을 이야기함.
절정	더블 더빙의 공연에서 영상과 연주의 엿박자가 관객들에게 ___을 얻고, 엿박자 D의 계획에 따라 앙코르 공연에 예정에 없던 ___들의 노래가 흘러나옴.
결말	___들의 노래에 ___하며 ___에서 벗어남.

3. 합창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 축제 때 부를 노래를 큰 고민 없이 ___ 노래로 선정함.
- 노래 연습보다는 ___에 몰두함.

↓

합창단 활동에 대해 ___하고 ___이 없음.

4. 합창에 대한 음악 선생의 태도

획일성	모두가 ___의 소리를 내야 함.
폭력성	다른 소리는 ___해야 함.

→ ___을 강조하고 ___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___을 상징함.

5. 고등학교 시절 인물들이 보여 주는 상징성

엿박자 D	자신을 드러내기를 ___지 않는 인물
음악 선생	___을 ___적으로 강요하고, 개인의 ___을 억압하는 인물
‘나’, 합창단원들	자신을 드러내기를 ___고 ___속에 ___되어 있는 개인들

6. 음치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

‘___’을 ‘___’으로 몰아세우고 ___을 무시하는 사회의 암묵적인 규약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___제기

과거	현재
___를 깨뜨려 노래를 망침.	서로 ___목소리들의 존재가 ___을 ___.

7. ‘엇박자 D’가 음치들의 노래를 들려준 의도

- 20년 전 공연에서 받은 마음의 ___
- ___에 대한 ___의 ___유도

↓

___를 ___하는 삶의 태도 강조

8. ‘음치’와 ‘합창’의 상징적 의미

음치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각자의 ___
합창	___를 이루는 세상

↓

- ‘음치들의 아름다운 합창’은 ‘다름’, ‘차이’가 ___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___를 이루는 것임을 의미함.
- ‘___’를 인정하지 않고 ‘___’과 ‘___’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에 대한 ___적 태도가 담김.

9. ‘엇박자 D에 대한 예의’의 의미

과거에 엇박자 D가 폭력을 당할 때 ___으로 ___한 것에 대한 ___함.

+

과거의 상처를 ___하고 ___의 가치를 ___게 해 준 것에 대한 ___과 ___.

→ ‘나’와 친구들은 ___의 의미로, 20년 전 엇박자 D에게 강요되었던 ___를 하며 ___와 ___를 포함.

O / X 문제

【1~10】 「엇박자 D」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1. 이 작품은 공연 기획자인 ‘나’가 고등학교 동창인 엇박자 D를 만나 함께 공연을 기획하면서 ‘다름’이 ‘틀림’이라고 여겼던 자신의 고정 관념을 버리게 되는 과정을 담은 소설이다. (O / X)

2. 작품 속 ‘음치’는 전체의 통일을 방해하는 개별성이며, ‘전체’에서 소외된 ‘개인’을 의미한다. (O / X)

3. 엇박자 D가 기획한 음치들의 합창은 개개인이 저마다의 박자와 음을 내더라도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다름에 대한 존중, 다양성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O / X)

4. ‘나’는 이 작품의 서술자로, 과거에 엇박자 D와 함께 합창단원이었으며,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엇박자 D가 음악 선생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받는 것을 방관하였지만, 현재는 엇박자 D를 통해 직업적으로 성공을 하고자 하는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다. (O / X)

5. ‘나’를 비롯한 합창 단원들은 합창단 활동에 별다른 애정이 없었지만, 엇박자 D와 음악 선생은 합창단 활동에 애정이 있었다. (O / X)

1. O 2. O 3. O 4. O 5. X

2027
고2 문학
지학사

2027 고2 문학 지학사 | 2(2)(2) 엃박자 D 복습 필기용 지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앞부분 줄거리] 공연 기획자인 ‘나’는 공연 디브이디(DVD)를 제작하다 고등학교 때 함께 합창단 활동을 했던 동창인 엃박자 D를 관객들 사이에서 발견하고, 고등학교 합창단 시절을 떠올린다.

축제 때 부를 노래를 정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누군가 그즈음 가장 인기 있던 발라드 곡을 추천했(다기보다 그냥 제목을 댔)고, 모두들 찬성했다. 어떤 노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합창을 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노래였다. 단순한 멜로디였고,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 데 여러 명이 뛰어들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부르기 쉬운 노래였다. 우리는 노래를 정한 후 다시 자습에 몰두했다. 연습이 시작된 건 그 다음 주였다. 지금도 첫 연습을 하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자, 자, 쉬운 노래니까 딱 한 번만 맞춰 보고 자습하자.”

음악 선생이 피아노 반주를 시작한 후, 우리는 엃박자 D의 진면목을 처음 알게 됐다. 그는 놀라울 정도의 박치이자 음치였다. 음악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모두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노래와 목소리 사이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불길한 기운은 순식간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집어삼켰다. 다섯 소절쯤 지나자 노래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야, 아무리 편안한 맛에 들어왔다지만 그래도 명색이 합창단인데 노래를 이렇게 못할 수가 있냐?”

음악 선생은 반주를 멈추고 화를 냈다. 처음부터 다시 불러 보았지만 불길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세 번째에야 선생님은 그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잠깐, 이 목소리 누구야? 계속 불러 봐.”

음악 선생은 세 줄로 서 있던 22명의 아이들 앞을 천천히 걸었다. 모두들 긴장했다. 내 노래 실력이 합창을 망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과 그래도 혹시 나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이들의 노래에 배어났다. 불안한 마음이 부르는 노래는, 이미 노래가 아니었다.

“단장, 이게 네 목소리 아냐? 모두 멈추고 단장 혼자 불러 봐.”

엇박자 D의 노래는 들어 줄 만했다. 부드러운 느낌도 잘 살아 있었고, 박자도 이상하지 않았다. 음악 선생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뭔가 이상하긴 한데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상한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을 말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 합창을 시도해 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엇박자 D의 목소리만 들리면 아이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음은 뒤죽박죽이 됐으며 박자는 제멋대로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였다. 음악 선생은 엇박자 D에게 자진 사퇴를 권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광고를 여러 곳에 해 두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좋아, 대신 넌 절대 소리 내지 마. 그냥 입만 병긱병긱하는 거야. 알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엇박자 D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다. 음악 선생이 했던 말과 엇박자 D의 반응과 친구들의 속삭임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이름만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가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 엇박자 D의 이야기를 한 적도 있지만 그의 이름이 혀끝에 오르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D라는 문자는 그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왔다. D라는 것이 그의 이름이니셜인지, 아니면 그가 D음만을 고집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D라는 문자를 보고 있으면 곧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움이 감지되고, 언제나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었다. 어찌됐건 우리는 엇박자 D의 이야기를 자주 했다. 재미있는 추억거리였고, ‘엇박자 디’라고 발음할 때의 이상한 쾌감도 좋았다. 그의 이름이 거론되면 대개 첫 연습 때 그가 보여 준 놀라운 엇박에 대한 감탄이 이야기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

엇박자 D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공연 디브이디가 발매되고 2주일이 지나서였다.

[중략 부분 줄거리] 고등학교 축제 때 엇박자 D는 립싱크만 하라는 음악 선생의 지시를 듣지 않고 노래를 불러 공연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음악 선생에게 크게 혼난다. 그 사건 이후 그는 음악에 대한 관심을 끊고 영화를 전공하게 되지만, 「소리의 전시회」라는 무성 영화에서 영감을 얻어 대학원에서 음치들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가 공연 기획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에게 찾아와 자신의 공연 기획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다가 평소에 관심을 두었던 그룹 ‘더블 더빙’을 엇박자 D가 섭외했다는 말을 듣는다. 더블 더빙과 함께 공연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나’는 엇박자 D의 부탁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엇박자 D의 요청으로 오랜만에 합창단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공연에 초대한다. 공연은 시작 전부터 반응이 좋아 매진이 되고, 성공적으로 진행된다.

관객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순간은 무성 영화의 장면에 맞춰 더블 더빙이 연주를 할 때였다. 「재채기」라는 아주 짧은 무성 영화였다. 영화가 시작되면 한 여자의 커다란 얼굴이 나타난다. 여자는 코가 간지럽다. 재채기가 나오려고 한다. 참아 보지만 쉽지가 않다. 내용은 그게 전부다. 재채기가 나올까 말까 하는 장면에 맞춰 더블 더빙이 재미난 연주를 들려줬다. 관객들은 무성 영화를 보며 한 번 웃고, 더블 더빙의 연주를 들으며 또 한 번 웃었다. 여자의 찡그린 얼굴과 더블 더빙이 들려주는 음악은 묘하게 리듬이 맞질 않았다.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엇박자였다. 관객들은 그걸 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더블 더빙이 엇박자 D를 위해 이런 음악을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마치 그에게 바치는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엇박자 D를 위한 엇박자 연주곡.’

공연이 끝났지만 관객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모두 앙코르를 외치고 있었다. 물론 앙코르곡을 준비해 두었다. 더블 더빙이 다시 나타났고, 모든 조명이 꺼졌다. 관객들의 소리도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하나의 기다랗고 평평한 일직선으로 변했다.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다. 음악 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들의 최고 히트곡을 연주할 차례였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다.

“음향, 뭐가 잘못된 거야? 사운드 체크해 봐.”

무선 헤드셋으로 엇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잘못된 건 없어. 너 몰래 만들어 둔 시나리오야. 20년 전 친구들에게 바치는 선물이야.”

아주 작게 들리던 음악 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관객들 사이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누군가의 노래였다. 아무런 반주도 없이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어 본 노래였다. 그제야 노래의 제목이 생각났다.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라는 노래였다. 20년 전 축제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나나 친구들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엇박자 D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세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고, 네 사람, 다섯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합창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창이라고 하기에 서로의 음이 맞질 않았다. 박자도 일치하지 않았다.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20년 전 바로 그 노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치들의 목소리로만 믹싱한 거니까 즐겁게 감상해 줘.”

무선 헤드셋에서 다시 엇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명은 하나도 켜지질 않았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노

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이어서 그런 것일까. 노래는 아름다웠다.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마치 화음 같았다. 어둠 속이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음치들의 노래는 어두운 방에서 전원 스위치를 찾는 왼손처럼 더듬더듬 어디론가 내려앉았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몇몇 관객은 후렴을 따라 부르기까지 했다. 1절이 끝나자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명이 켜졌다. 더블 더빙이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의 간주를 연주했고,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은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 브라보를 외쳤다.

음치들의 노래 2절이 시작되자 더블 더빙은 다시 연주를 멈췄다. 악기를 연주하면 그들의 노랫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것이 분명했다. 22명의 노래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이유는, 아마도 엷박자 D의 리믹스 덕분일 것이다. 22명의 노랫소리를 절묘하게 배치했다. 목소리가 겹치지만 절대 서로의 소리를 해치지 않았다. 노래를 망치지 않았다.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의 얼굴에는 아득하게 흐려진 어떤 것을 추억하는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벌긋거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나 역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오래된 노래였지만 가사가 모두 기억났다. 20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들이 립싱크를 하고 있었다. 음치들의 노랫소리에 맞춰 우리는 입을 벌긋거렸다. 노래를 따라 부르긴 했지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그저 입만 벌긋거렸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그러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것이 엷박자 D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김중혁, 「엷박자 D」